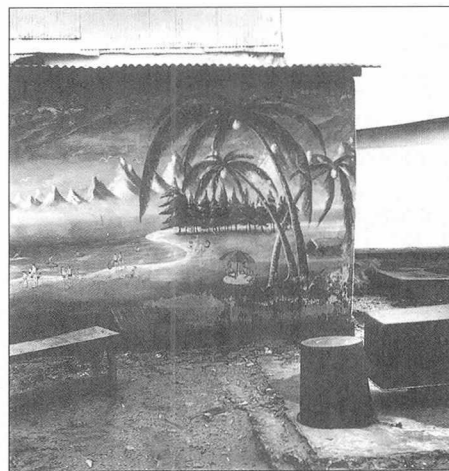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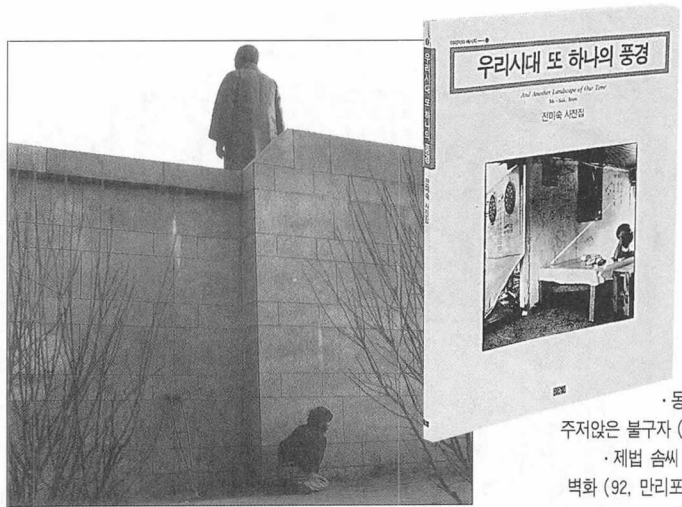


산업화에 비친 삶의 빛과 그림자

전미숙 《우리시대 또 하나의 풍경》



· 동상 뒷면에
주저앉은 불구자 (91, 종로).
· 제법 솜씨 있게 그린
벽화 (92, 만리포)(오른쪽).

세상 어디에도 빛과 그림자는 존재한다. 빛은 반드시 노출된 무엇의 그림자를 만들게 마련이다. 세상사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의 포위망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절, 우리의 삶은 더욱 험난한 포위망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떨미나도록.

전미숙(34)의 사진집 《우리시대 또 하나의 풍경》(1994, 눈빛)은 문화비평적 관점에서 급격히 진행되던 산업화의 빛에 노출된 우리의 어두운 삶의 그림자에 초점을 맞춘다. 모두 흑백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집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일상에 노출된 그림자를 강조하기 위해 단순·직접적인 구도를 유용하고 있다. 마구 흐트러져 있는 물체를 정면에서 잡은 구도는 피사체의 내면 속으로 곧장 돌입하려는 장치다. 저자 스스로 서문을 통해 이러한 장치를 실행한 것은 “시

간의 풍화과정 속에 담겨 있는 (피사체의) 내면의 이야기를 읽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즉 이러한 장치는 주제로 삼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채색하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사진마다 등장하는 ‘낙서’다. 낡은 건물 벽에 그려진 여자나체그림부터 제법 솜씨 있게 그린 벽화, 부서진 건물 벽에 붙은 상호까지 낙서가 그려져 있다. 대천 해수욕장 어느 ‘술집’ 벽에 씌어진 식단표까지 낙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들의 꾸밈새가 엉성해 보이는 것은 사회로부터 노출된 음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낙서는 개인적 취향과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는 대중적 오브제이며, 문화의 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사회적 단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진들이다. 어느 위인의 거대한 동상 뒤편에 주저앉은 불구자, 효자 정재수의 동상 옆에 쓸쓸히 앉아 있는 노인, 허름한 대문가에 나와 낯선 이를 응시하고 있는 시골 아이의 모습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터전의 피폐한 모습이 공간마다 이물질처럼 떠돌고 있음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격차를 보이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사회적 현상이다. 산업화에서 탈락한 것들의 이미지가 사뭇 뒤영켜 있는 사진집은 우리의 의식 깊이 흐르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불안을 반영한 듯하다.

산업화에 따른 흔재된 가치관의 충돌을 사진 속에 담은 작가는 현재 ‘스튜디오 포토 포름’을 운영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46호 / 1998년 11월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頂上의 기획+편집



서울·종로구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739-0150(代) 팩스739-0160

① 어려운 때일수록 그 승부처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장정·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高品質의 인쇄+제본



서울·종로구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739-0150(代) 팩스739-0160 인쇄·제본공장465-4707(代)

■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공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